

[여행]

말레이시아
— 페렌티안 아일랜드 코타바루

대자연의 풍요로움 넘실 쪽빛 바다 순박한 웃음



'잠깐 쉬어가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말레이시아의 페렌티안 섬.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은 시간도 멈춰버린 듯 고즈넉하다.



말레이시아는 같은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이나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방문이 적은 곳이다. 특히 이번에 찾은 동부 지역은 우리에게 알려진 페낭, 말라리, 코타카니바루 등과 달리 아직 관광지로 개척되지 않은 처녀지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자연이 있었고, 호기심이 담긴 눈동자로 관광객们를 맞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까지 가는 여정은 조금 번거로웠지만 그 고단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곳엔 편안한 휴식과 아름다운 자연이 기다리고 있었다.